

체형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 비교

이정임¹⁾ · 남윤자²⁾

1)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부

2)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Comparison of the Consciousness of One's Body Between Oneself and Other People

Jeong-Yim Lee¹⁾ and Yun-Ja Nam²⁾

1) Division of Clothing & Textiles,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2)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elf consciousness of one's body cathexis with other people's. The sample subjects were 97 females between 18 and 24 years old. They were measured on November 1999 with the anthropometric measuring, and their front and side photographs were taken. First, we investigated the size recognition of 5 body parts and ready-made clothing, the consciousness of the size of 5 body parts and body proportion for subjects. Second, we organized panel group consisted of 30 females in twenties majoring the Clothing & Textiles. The consciousness of panel group to the subject's body proportion was investigated by using the front and side photographs of subjects, and was compared with self consciousness of subject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Most of subjects recognized their status, bustgirth and waistgirth larger than their real size, but they recognized their hipgirth smaller than their real size and their weight similar to their real weight. And subjects were conscious of their status and bustgirth small, their weight, waistgirth and hipgirth proper or a little big, and their body proportion normal or a little unbalanced. The self consciousness of one's body cathexis was related to heights of each part especially, and subjects had a tendency to appreciate their body proportion positively if they recognized themselves tall and thin. Upon comparison of the consciousness of subject's body between subjects themselves and panel group, the appreciation of panel group was better than those of subjects themselves. And we also certified the difference of consciousness of one's body cathexis between oneself and other people. The consciousness of other people was related to the size of each body part, but the self consciousness was predicted that it was more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factor including satisfaction or preference.

Key words : the self consciousness of one's body, the consciousness of other people to one's body, recognition of the size, psychological factor

1. 서 론

신체에 대한 자기의 인식은 의복행동을 포함하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요즘에는 신체적 자기에 대한 불만족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의복을 이용한 이미지 변신 뿐 아니라 다이어트나 성형수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예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복식심리학적 측면에서도 만족도 높은 의복설계를 위해 신체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를 의복행동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영주(1998)는 30~49세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슬랙스 제작을 위한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하였다. 정재은·남윤자(1999)는 1997년과 1992

년 조사 집단에 대해 신체 만족도, 인식도 및 이상형과 실제 체형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한 결과, 실제 신체 측정치보다는 신체에 대한 인식도가 신체 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박우미(1993)는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하였으며, 박재경·남윤자(1999)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체에 대한 자기의 인식만을 다루고 있고 신체에 대해 타인이 갖는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Schenk & Holman(1980)은 소비자가 상황에 있어서의 타인의 지각과 자신의 자기 이미지 내역을 합쳐서 상황적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황적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는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즉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 자기 신체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의복행동에 반영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Jeong-Yim Lee
Tel. +82-42-520-5577, Fax. +82-42-520-5576
E-mail: ljyim@mail.pcu.ac.kr

따라서 신체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분석해 내어 자기인식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의 샵이나 스타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이미지 내역을 해석해 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며, 소비자가 자기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신체 크기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파악하고 체형에 대한 자기와 타인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첫째, 18~2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별 크기와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둘째, 신체부위별 크기 및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셋째,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신체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2.1.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행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기가 갖는 인식을 '자기의 인식'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타인

이 갖는 인식을 '타인의 인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2.2. 연구자료 및 연구내용

인체측정 자료 : 인체측정 자료는 1999년 11월에 18~24세 여대생 97명을 직접측정하고 사진 촬영한 자료이다. 마틴의 인체 측정기를 사용하여 총 73항목을 측정한 자료 중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27항목을 사용하였다. 사진촬영은 피험자 97명의 정면과 측면 체형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 신체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피험자의 신체 주요 부위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 자료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대상 피험자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가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으며 엉덩이둘레는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크기와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 조사 : 인지도 조사는 인체측정 피험자 97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설문항목은 신체 5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는 5항목, 기성복 사이즈인지를 조사하는 5항목 등 총 10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신체 크기 및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 조사 : 자기의 인식 조사는 인체측정 피험자 97명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설문항목은 신체 5부위에 대한 크기인식을 조사하는 5항목,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1항목 등 총 6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타인의 인식 조사 : 신체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의류학 전공의 20대 대학원생 30명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각 평가자에게 피험자 97명의 정면과 측면의 사진을 각각 제시하고 '신체 프로포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97명의 정면과 측면 사진은 동시에 제시되지 않고 정면사진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측면사진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다. Table 2에 신

Table 1. Mean & S.D. of 5 body parts in the research data (cm, kg)

| | Research data | | 1997 National somatometry survey data | | t-test result |
|------------|---------------|------|---------------------------------------|------|---------------|
| | Mean | S.D. | Mean | S.D. | |
| Status | 160.4 | 5.1 | 159.2 | 9.9 | 1.37 |
| Bustgirth | 80.1 | 4.3 | 81.5 | 4.7 | 7.88** |
| Waistgirth | 64.2 | 4.0 | 65.5 | 4.7 | 6.66* |
| Hipgirth | 90.9 | 5.7 | 89.2 | 4.0 | 13.30*** |
| Weight | 50.7 | 5.4 | 49.7 | 5.4 | 3.05 |

*, 0.01 ≤ p < 0.05, **, 0.001 ≤ p < 0.01, ***, p < 0.001

Table 2. Contents for the survey of self consciousness of one's body cathexis and other people's

| Contents | Method |
|--|--|
| Size recognition of 5 parts (5 items) | Subjects wrote their Status, Weight, Bustgirth, Waistgirth, Hipgirth size as they knew. |
| Self consciousness of one's body cathexis (16 items) | Subjects wrote their consciousness of their Status, Weight, Bustgirth, Waistgirth, Hipgirth using 5 Likert type. (Score 1=very small / Score 5=very large) |
| Proportion consciousness (1 item) | Subjects wrote the self consciousness of their body proportion using 5 Likert type. (Score 1=very beautiful / Score 5=very unbeautiful) |
| Size recognition of ready-made clothing (5 items) | Subjects wrote their clothing size of Jacket, Skirt & Slacks, T-shirts, Brassiere, panty as they knew. |
| Consciousness of other people to one's body cathexis (2 items) | The panel group wrote their consciousness of 97 subject's body proportion on the front and side photographs of subjects using 5 Likert type. (Score 1=very beautiful / Score 5=very unbeautiful) |

체 크기와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 및 자기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는 SPSS 10.1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신체 5개 부위의 크기와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응답률을 분석하였으며, 부위별 실제크기와 인지크기 차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5개 부위 크기와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분포를 분석하였다.

신체에 대한 타인의 인식과 자기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타인의 인식 점수와 자기의 인식 점수 간 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구하고 점수차의 빈도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타인의 인식 점수 및 자기의 인식 점수와 신체치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타인의 인식 조사에 참여한 30명 평가자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평가자들이 일관성 있는 평가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3.1. 신체 크기와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

Table 3. Response rate in the survey of size consciousness of 5 body parts

| | Status | Bustgirth | Waistgirth | Hipgirth | Weight |
|---------------|--------|-----------|------------|----------|---------|
| Response rate | 97 | 78 | 74 | 44 | 95 |
| | (100%) | (80.4%) | (76.3%) | (45.4%) | (97.9%) |

• Response rate : rate of respondents to all of 97 subjects

Table 4. Response rate in the survey of size consciousness of ready-made clothing

| | Jacket | Skirt/Slacks | T-shirts | Brassiere | Panty |
|---------------|---------|--------------|----------|-----------|---------|
| Response rate | 94 | 94 | 92 | 83 | 69 |
| | (96.9%) | (96.9%) | (94.9%) | (85.6%) | (71.1%) |

• Response rate : rate of respondents to all of 97 subjects

Table 5. Distribution of difference between real size and recognized size of status, bustgirth, waistgirth, hipgirth(cm)

| | Difference between real size and recognized size (cm) | | | | | | | | | total |
|------------|---|-------------|--------------|--------------|--------------|-------------|-------------|------------|------------|-------------|
| | ~ -7 | -7 ~ -5 | -5 ~ -3 | -3 ~ -1 | -1 ~ 1 | 1 ~ 3 | 3 ~ 5 | 5 ~ 7 | 7 ~ | |
| Status | | | 7 (7.2) | 37 (38.1) | 51 (52.6) | 2 (2.1) | | | | 97 (100) |
| Bustgirth | 3 (3.8) | 3 (3.8) | 13 (16.7) | 23 (29.5) | 24 (30.8) | 5 (6.4) | 4 (5.1) | 3 (3.8) | | 78 (100) |
| Waistgirth | 4 (5.4) | 9 (12.2) | 11 (14.9) | 25 (33.8) | 13 (17.6) | 6 (8.1) | 4 (5.4) | | 2 (2.7) | 74 (100) |
| Hipgirth | | 3 (6.8) | | 9 (20.5) | 11 (25.0) | 9 (20.5) | 7 (15.9) | 1 (2.3) | 4 (9.1) | 44 (100) |

• -7 ~ -5 : -7 ≤ size difference < -5

• () : rate of respondents per each range to all of the respondents in each body part

신체 5개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Table 3), 부위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응답률을 신체부위별로 비교해 보면, 키와 몸무게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각각 80.4%와 76.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엉덩이둘레는 45.4%로 전체 응답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엉덩이둘레의 경우 하의의 사이즈 호칭에는 표기되는 항목이지만, 실질적으로 하의 사이즈 선택 시 허리둘레 치수만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엉덩이둘레 치수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Table 4), 재킷과 바지, 티셔츠 사이즈에 대해서는 94%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브래지어와 팬티 사이즈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85.6%와 71.1%로 나타났다. 겉옷에 비해 속옷 사이즈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 피험자들이 속옷의 사이즈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3의 신체 부위별 크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의 평균 응답률과 비교할 때 기성복 사이즈 인지도 조사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가 부위별 크기에 대한 인지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신체 부위별 실제크기와 인지크기 차의 빈도분포를 분석한 결과(Table 5), 신체 크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Table 3)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키는 실제크기와 인지크기 차의 분포 폭이 -5~3 cm로 다른 부위에 비해 분포의 폭이 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2.6%가 -1~1 cm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응답자의 반 정도는 자신의 키 치수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크기와 인지크기 차의 분포가 (+) 쪽보다는 (-) 쪽으로 약간 치우치고 있어 자신의 키를 실제크기보다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실제크기와 인지크기 차의 분포 폭이 매우 넓게 나타났다. -1~1 cm 구간에 속하는 피험자는 각각 24명(30.8%)과 13명(17.6%)으로, Table 3에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크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Table 3)의 응답률이 각각 80.4%, 76.3%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피험자는 자신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치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쪽보다는 (-)쪽에서

Table 6. Distribution of difference between real size and recognized size of weight (kg)

| | Difference between real size and recognized size (kg) | | | | | | total |
|--------|---|--------|--------|--------|--------|-------|-------|
| | ~-2 | -2~-1 | -1~0 | 0~1 | 1~2 | 2~ | |
| Weight | 3 | 16 | 28 | 31 | 13 | 4 | 95 |
| | (3.3) | (16.8) | (29.5) | (32.0) | (13.7) | (4.3) | (100) |

· -2 ~ -1 : -2 ≤ difference < -1

· () : rate of respondents per each range to all of the respondents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자신의 가슴둘레 및 허리둘레를 실제크기보다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낸 엉덩이둘레 부위도 실제크기와 인지크기 차의 분포 폭이 넓게 나타났는데, 다른 부위와 달리 (-)쪽보다 (+)쪽에서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자신의 엉덩이둘레를 실제크기보다 작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 cm구간에 응답자의 25%만이 분포하고 있어 엉덩이둘레 역시 피험자들이 정확한 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에서 몸무게의 실제크기와 인지크기 차의 분포를 살펴보면, -1~1 kg 구간에 전체 응답자의 61.5%가 분포하고 있으며 -2~2 kg 구간에 전체의 92.0%가 분포하고 있어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몸무게를 실제몸무게에 가깝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20대 초반 여성들로 구성된 본 연구대상 피험자들은 자신의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는 크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둘레항목은 치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키와 가슴둘레, 허리둘레는 실제 치수보다 크게 인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엉덩이둘레는 실제 치수보다 작게 인지하고 있었다. 몸무게는 비교적 작은 오차범위에서 실제몸무게에 가깝게 인지하고 있었다.

3.2. 신체 크기 및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

신체 5개 부위의 크기 및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분포에 대한 분석결과를 각각 Table 7과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7에서 키와 가슴둘레 항목의 크기 및 프로포션에 대한

Table 7. Mean & S.D. of the self consciousness score in 5 body parts and body proportion

| Body parts | Self consciousness score | |
|------------|--------------------------|------|
| | Mean | S.D. |
| Status | 2.34 | 1.11 |
| Weight | 3.37 | 0.88 |
| Bustgirth | 2.36 | 0.98 |
| Waistgirth | 3.45 | 0.82 |
| Hipgirth | 3.69 | 0.98 |
| Proportion | 2.23 | 0.77 |

자기의 인식 점수의 평균은 3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 대한 자기의 인식 점수의 평균은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위별 자기의 인식 점수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Table 8), 키의 경우 점수 1, 2, 3에 전체 피험자의 87.6%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점수 1과 2에 전체 피험자의 59.8%가 분포하고 있어 자신의 키를 작다고 생각하는 피험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슴둘레는 점수 1, 2, 3에 전체 피험자의 87.7%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점수 1과 2에 55.7%의 피험자가 분포하고 있어 피험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가슴둘레를 작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몸무게는 점수 3과 4에 전체 피험자의 77.3%가 분포하고 있으며, 허리둘레는 점수 3과 4에 85.5%, 엉덩이둘레는 점수 3과 4에 72.2%가 분포하고 있어, 연구 대상 피험자는 자신의 몸무게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적당하거나 약간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포션은 점수 2와 3에 79.3%가 분포하고 있어 피험자들 대부분이 신체 프로포션에 대해서는 약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타인의 인식

피험자 신체의 정면과 측면 사진을 사용한 타인의 인식 조사에서 30명의 평가자들이 정확하고 일관된 응답을 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평가자 응답에 대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정면과 측면의 경우 모두 0.96이상으로 나타나 평가자들의 응답이 일관되고 신뢰할만한 응답이었음을 확인할

Table 8. Distribution of the self consciousness score in 5 body parts and body proportion

| Self consciousness score | Status | | Weight | | Bustgirth | | Waistgirth | | Hipgirth | | Proportion | |
|--------------------------|--------|----------|--------|----------|-----------|----------|------------|----------|----------|----------|------------|----------|
| | Freq. | Rate (%) | Freq. | Rate (%) | Freq. | Rate (%) | Freq. | Rate (%) | Freq. | Rate (%) | Freq. | Rate (%) |
| 1 | 24 | 24.7 | 2 | 2.1 | 20 | 20.6 | 3 | 3.1 | 4 | 4.1 | 15 | 15.5 |
| 2 | 34 | 35.1 | 11 | 11.3 | 34 | 35.1 | 5 | 5.2 | 5 | 5.2 | 50 | 51.5 |
| 3 | 27 | 27.8 | 42 | 43.3 | 31 | 32.0 | 40 | 41.2 | 26 | 26.8 | 27 | 27.8 |
| 4 | 6 | 6.2 | 33 | 34.0 | 11 | 11.3 | 43 | 44.3 | 44 | 45.4 | 5 | 5.2 |
| 5 | 6 | 6.2 | 9 | 9.3 | 1 | 1.0 | 6 | 6.2 | 18 | 18.6 | 0 | 0.0 |
| Total | 97 | 100.0 | 97 | 100.0 | 97 | 100.0 | 97 | 100.0 | 97 | 100.0 | 97 | 100.0 |

· : distributed range more than 20% of all of 97 subjects

Table 9. Reliability index of appreciation by panel group

| Appreciation of front proportion | Appreciation of side proportion |
|----------------------------------|---------------------------------|
| 0.9680 | 0.9658 |

Table 10. Mean, S.D., Minimum, and Maximum of Score difference between the self consciousness and other people's in the body proportion

| Score difference between the self consciousness and other people's | Mean | S.D. | Minimum | Maximum |
|--|----------------------------------|------|---------|---------|
| | Appreciation of front proportion | 0.69 | 0.85 | -1.17 |
| Appreciation of side proportion | 0.66 | 0.86 | -1.70 | 3.03 |

Table 11. Distribution of score difference between the self consciousness and other people's in front and side proportion

| Score difference between the selfconsciousness and other people's(x) | Appreciation of front proportion | | Appreciation of side proportion | |
|--|----------------------------------|---------|---------------------------------|---------|
| | Frequency | Rate(%) | Frequency | Rate(%) |
| -2≤x<-1 | 2 | 2.1 | 3 | 3.1 |
| -1≤x<0 | 19 | 19.6 | 17 | 17.5 |
| 0≤x<1 | 42 | 43.3 | 44 | 45.4 |
| 1≤x<2 | 27 | 27.8 | 26 | 26.8 |
| 2≤x<3 | 6 | 6.2 | 6 | 6.2 |
| 3≤x<4 | 1 | 1.0 | 1 | 1.0 |
| Total | 97 | 100.0 | 97 | 100.0 |

*: distributed range more than 20% of all of 97 subjects

수 있다.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타인의 인식과 자기의 인식 간 점수 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최소값, 최대값 등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Table 10에 제시하였다.

Table 10에서 정면 프로포션에 대한 타인의 인식과 자기의 인식 간 점수차의 평균은 0.69이며 최소값은 -1.17, 최대값은 3.23으로 나타났다. 측면 프로포션에 대한 타인의 인식과 자기의 인식 간 점수차의 평균은 0.66이며 최소값은 -1.70, 최대값은 3.03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 점수가 타인의 인식 점수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평가자들에 의한 타인의 인식과 자기의 인식 간 점수차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Table 11), 정면과 측면의 경우 모두 0≤x<1 구간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x<2 구간, -1≤x<0 구간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타인의 인식 점수가 자기의 인식 점수보다 약 1~2점 높은 피험자들이 많음을 나타내며, 또한 타인의 인식 점수가 자기의 인식 점수보다 2점 이상 높게 나타난 피험자도 정면과 측면의 경우 모두 7.2%인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인식 점수보다 자기의 인식 점수가 더 낮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타인에 비해 자신의 신체 프로포션에 대해 더 낮은 평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the consciousness score and body size

| | Consciousness score of other people's | | Consciousness score of oneself |
|-----------------------|---------------------------------------|-----------------|--------------------------------|
| | Front proportion | Side proportion | |
| Stature | 0.503** | 0.427** | 0.300** |
| Shoulder height | 0.465** | 0.364** | 0.244* |
| Bustpoint height | 0.537** | 0.432** | 0.321** |
| front waist height | 0.487** | 0.352** | 0.200 |
| Hip height | 0.640** | 0.563** | 0.286** |
| Crotch height | 0.585** | 0.488** | 0.242* |
| Tibiale height | 0.460** | 0.368** | 0.192 |
| Bust girth | -0.392** | -0.456** | -0.052 |
| Waist girth | -0.499** | -0.603** | -0.170 |
| Hip girth | -0.312** | -0.353** | -0.135 |
| Thigh girth | -0.474** | -0.529** | -0.254* |
| Knee girth | -0.243* | -0.306** | -0.059 |
| Calf girth | -0.385** | -0.472** | -0.073 |
| Ankle girth | -0.196 | -0.202* | 0.080 |
| Upperarm girth | -0.475** | -0.561** | -0.165 |
| Elbow girth | -0.354** | -0.381** | -0.110 |
| Lowerarm girth | -0.471** | -0.536** | -0.089 |
| Wrist girth | -0.280** | -0.266** | 0.038 |
| bust width | -0.335** | -0.400** | -0.150 |
| Waist width | -0.404** | -0.447** | -0.262* |
| Hip width | -0.212* | -0.196 | -0.125 |
| Bust depth | -0.407** | -0.476** | -0.009 |
| Waist depth | -0.445** | -0.586** | -0.105 |
| Hip depth | -0.378** | -0.499** | -0.060 |
| Shoulder angle(right) | -0.181 | -0.088 | -0.193 |
| Shoulder angle(left) | 0.113 | 0.145 | -0.108 |
| Weight | -0.309** | -0.420** | -0.082 |

*: 0.01 ≤ p < 0.05, **: 0.001 ≤ p < 0.01

신체 주요부위 27항목에 대해 타인의 인식 점수 및 자기의 인식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면과 측면의 프로포션에 대한 타인의 인식 점수와 신체 주요부위 치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기의 인식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항목은 27항목 중 키, 어깨점높이, 젖꼭지점높이, 엉덩이높이, 살 높이, 넓다리둘레, 허리너비 등의 7항목에 불과했다.

이것은 평가자들에 의한 타인의 인식 점수가 자기의 인식 점수에 비해 신체 주요부위 치수와 더 높은 상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자기의 인식 점수는 실제 신체 치수 외에도 체형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나 만족도 등의 주관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기의 인식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7항목 중 5항목이 높이항목으로, 자기의 인식 점수는 주로 신체의 높이지

Table 13. Correlation of the self consciousness between body proportion and body size

| | Score of self consciousness in the size of 5 body parts | | | | |
|---|---|----------|-----------|------------|----------|
| | Status | Weight | Bustgirth | Waistgirth | Hipgirth |
| Score of self consciousness in the proportion | 0.375** | -0.365** | -0.025 | -0.318** | -0.191 |

** : $0.001 \leq p < 0.01$

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깨경사각도는 타인의 인식 점수 및 자기의 인식 점수에 대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정면과 측면 프로포션에 대한 타인의 인식 점수가 키 등 높이 항목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둘레와 너비, 두께, 몸무게 등의 항목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평가자들에 의한 평가 시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 점수가 신체 어느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 점수와 부위별 크기에 대한 자기의 인식점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13에서와 같이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항목에 대한 크기인식이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0.001 \leq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에 대한 크기인식은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몸무게와 허리둘레 항목에 대한 크기인식은 프로포션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자신을 키가 크고 허리가 가늘고 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신체 프로포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체 크기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파악하고 체형에 대한 자기와 타인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18-2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별 크기와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 신체 부위별 크기와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신체 프로포션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자기의 인식과 비교, 고찰하였다.

신체 5개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의복 사이즈 선택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신체치수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지 않은 신체부위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인지도가 신체 크기에 대한 인지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의복 사이즈 호칭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 부위별 실제크기와 인지크기 차의 빈도분포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자신의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는 크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 가슴둘레와 허리둘

레, 엉덩이둘레 등의 둘레항목은 치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키와 가슴둘레, 허리둘레는 실제 치수보다 크게 인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엉덩이둘레는 실제 치수보다 작게 인지하고 있었고, 몸무게는 비교적 작은 오차범위에서 실제몸무게에 가깝게 인지하고 있었다.

부위별 자기의 인식 점수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자신의 키와 가슴둘레가 작으며, 자신의 몸무게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적당하거나 약간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체 프로포션에 대해서는 약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체 프로포션에 대해 평가자들에 의한 타인의 인식과 자기의 인식 간 점수차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타인에 비해 자신의 신체 프로포션에 대해 더 낮은 평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평가자들에 의한 인식 점수가 자기의 인식 점수에 비해 신체 주요부위 치수와 더 높은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의 인식 점수는 주로 신체의 높이치수와 관련이 있었으며, 자신을 키가 크고 허리가 가늘고 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자신의 신체 프로포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신체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은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인식은 신체의 크기 등 외형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자기의 인식은 신체 크기 이외에 체형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도나 만족도 등의 심리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속연구를 통해 신체에 대한 자기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복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서울, pp. 247-291.
- 기술표준원 (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체위조사 보고서”. 기술표준원.
-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우미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 박재경 · 남윤자 (1999)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과의 상관

-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 이영주 (1998) 슬랙스 제작을 위한 성인 여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 분석 -30세에서 49세까지-. *한국의류학회지*, **22**(1), 127-138.
- 정재은·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과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 정재은·이순원 (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448-458.
- 황진숙 (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 Labat K. and Delong M.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Schenk C.T. and Holman R.H. (1980) A sociological approach to brand: the concept of situational self imag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7**, 613.

(2003년 5월 7일 접수)
